

일본 면방적기업 - 중국전략으로 생산거점 강화

일본의 면방적기업은, 그 동안 볼륨·존(volume zone)의 상품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의 방적공장을 선택, 투자나 기술제휴 등을 통해 해외의 생산거점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최근 일본 면방적 기업들이 중국 생산거점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후지보그룹에서는 “BVD” 상표로 도매하고 있는 내의의 절반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편성에서부터 봉제에 이르는 모든 제조설비를 구비한 중국의 공장과 내의생산에 관한 업무제휴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 제휴를 위한 협의가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하여 외의용 원단의 편성에서 염색공정까지 확장하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굴지의 프린트공장에서는 월간 600만m의 직물을 날염할 수 있으며, 150만m의 직물을 염색할 수 있는 최신설비의 염색공장을 신설하고, 가네보섬유에게 기술지도를 문의하였다. 이 문의가 성사되어 가네보섬유는 금년(2003년) 1월에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작하였다. 가네보섬유로서는 이 기술제휴가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면 이 공장을 중국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의향도 갖고 있다.

곤도방적소(近藤紡績所)는 중국 청도(靑島)에 방적, 편성, 염색까지의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합판(合辦)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이 합판공장 부지 내에 곤도방적이 전액 출자한 봉제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봉제품 청부(請負)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중국 내에 든든한 생산거점을 갖기 위하여 일본의 면방적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나 기술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물류거점도 확보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다이와보는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개년 경영계획에서, 중국에 판매 거점뿐만 아니라 물류거점도 세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다이이찌보(第一紡)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편성, 염색, 봉제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작년 10월 이 공장 부지 내에 다이이찌보 전용(專用)의 배송센터를 만들었다. 이 센터는, 다이이찌보가 일본내 소매업자의 요청을 받아, 중국공장과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앞으로는 일본의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각 점포별 상품목록 정보를 보내면, 동시에 중국 산둥성의 공장과 배송센터로 전달된다.

일본의 면방적 기업들은 대체로 중국에 먼저 생산거점을 만들고, 다음에 물류거점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과의 투자나 기술제휴가 점차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동향으로 봐서는 주로 일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중국시장이나 구미시장에 공급해주는 생산거점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는 구라시키 섬유가공, 구라보 어패럴, 구라보 텍스타일의 3개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상하이(上海)에 주재원 사무소를 오픈하였다. 이 주재원은 구라보가 수입하는 상품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비롯해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수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후지보 그룹에서는 “BVD” 내의를 위한 생산거점의 다국적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면에서도 다국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 홍콩, 대만, 타이 등에서 백화점에 도매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후지보, 홍콩에서는 후지보 홍콩, 대만에서는 후지보 복식(服飾), 타이에서는 “진타나 후지보”와 같은 현지법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음 타겟은 중국으로, 현재 판매방식을 조사 검토중이다.

가네보섬유는 작년 8월에 상하이 사무소로 현지법인인 “가네보섬유 상하이”를 설립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획제안 일관형(企劃提案 一貫型)의 어패럴제품 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시장과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